

濟州의 婚俗

朴 垚 洵*

제주도에서는 내륙지방과 마찬가지로 同姓同本은 서로 婚姻이 금지되고 있으며, 異姓同本이라도 본이 晉州인 姜·河·鄭氏와 三姓穴에서 나왔다는 高·梁·夫氏 등도 30~40년 전까지는 혼인이 금지 되었으나 지금은 서로 通婚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不婚하는 성씨는 진주 강씨와 南陽 洪氏로, 火姓과 水姓이라고 꺼린다.

제주의 中山間地方은 내륙지방과 혼인 풍속이 비슷한 데가 있으나 해안지방은 특이한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중산간 지방은 양반 층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해안지방은 서민층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면서도 서로 通婚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두 가지 유형 가운데서도 해안지방의 혼속이 제주 본연의 것으로 밀어지기에 질차에 따라서 서술해 보겠다.

I. 仲 媒

제주 전역이 중매는 반드시 남자가 해야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자 중매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30리쯤 떨어진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는 주로 여자가 중매를 한다고 한다.

중매를 이지방에서는 「대투보다」라고 하며, 딸 시집 보내는 것을 「딸판다」고 하며, 아들 장가 드리는 것을 「아들판다」라고 한다.

중매는 보통 양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내세워 의사를 타진해 보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과장

成婚의 가능성이 있으면 정식으로 증매에 나선다.

내륙 지방에서는 양가의 의사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중부 지방의 경우, 四柱가 가고 涓吉이 온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請婚書가 신랑집에서 가고, 許婚書가 신부집에 온 뒤에 四柱와 擇日이 교환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증매쟁이가 신부집에 가서 신부의 사주를 요구한다. 신부집에서는 그 혼사에 찬성하면 신부의 사주를 적어서 증매인으로 하여금 신랑집에 전하도록 한다. 신랑 집에서는 신부의 사주와 신랑의 사주를 상고하여 宮습을 보며, 家門과 건강을 따지고 여자의 생활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상과 같은 조건이 마음에 들면 신랑집에서 擇日을 신부집에 보내게 된다. 만약 궁합이 맞지 않거나 기타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 성혼할 의사가 없으면 택일을 보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요컨대 규수집에서 증매쟁이를 통해 사주를 보내는 것이 청혼이 되며, 신랑집에서 택일을 보내는 것이 곧 승락이 되는 것이다. 이 택일을 「擇日記」 또는 「涓吉」이라 한다. 옛날에는 問婚狀이 이 택일기와 함께 보내졌으나 지금은 택일기가 곧 문혼장이 된 것이다. 이 택일기의 내용은 「막편지」를 가져가는 날자와 婚禮 날자·시간, 그리고 신랑이 집을 나가는 시간을 적고, 또한 신부가 앓을 방위까지를 적어서 보낸다.

Ⅱ. 定 婚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막편지」를 가지고 가는 날이 곧 정혼이 되며, 이 정혼이 약혼인 것이다.

「막편지」는 마지막 편지라는 뜻으로 내용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혼인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다. 이 「막편지」는 신랑의 아버지(어머니도 무방함)·신랑·近親·증매인 등이 가져 간다.

이날 신랑집에서는 쌀 서너말, 술 한 말, 돼지 뒷다리 한짝, 닭고기 등을 가지고 신부집으로 간다. 쌀·술 등의 짐거리는 신랑의 누이나 친척 중에서 누잇벌 되는 여인이 이고 간다.

신랑측의 일행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에서 가져간 음식으로 상을 준비한다. 음식이 준비되면 신부될 아가씨가 직접 음식상을 들고 들어와서 술을 따른다. 이 때가 신랑·신부의 첫 대면이 되는 것이다. 신부가 술을 따라 드리고 퇴장을 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신부측의 부모와 가까운 일가 친척이 참여한다. 잔치가 끝나면 신랑의 아버지 또는 증매쟁이가 가지가 간 「막편지」를 신부의 아버지께 보이는 것으로 定婚이 된다.

Ⅲ. 이 바 지

婚事날이 다가오면 2~3일 전이나 바로 하루 전날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사에 쓰일 물품을 보낸다. 보통 쌀 한가마, 돼지 한마리(수퓐지) 닭 두마리, 술 한통, 달걀 10주(100개) 그 외에 돈 등이다. 이 물품을 마을의 공동하인(색장)에게 지워서 보낸다. 신부집에서는 이것을 받고 그 하인에게 술과 음식 등으로 대접을 한다. 하인이 돌아와서 신랑집 주인에게 물품을 전달한 결과를 보고 한다.

근래에는 신랑이 자기 여동생과 함께 가던가 여동생이 없으면 이웃집 여자 아이 중에서 15~16세 정도의 아가씨를 골라 동행을 한다. 이 「이바지」가 신랑덕의 경제적인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때에 신랑은 결혼 날 신랑이 올 시간을 알려 준다.

Ⅳ. 婚 禮

신랑덕에서는 선영께 제사를 모시는데,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장가 가는 날 영시를 기해 조상신위께 제를 모신다고 하며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침에 모시고, 아예 「門前祭」만 모시고 끝나는 가정도 허다 하다.

「문전제」는 이 지방의 독특한 풍속으로 본 제사를 모시기 바로 직전에 神

주가 오시는 것을 맞이 하는 절차로서 상방(대청마루)에서 대문을 향해서 젓상을 진설하고 제를 모신다. 이 상에는 돼지 머리와 갖가지 제물이 올려진다. 여기에 또 「禮狀」과 「홍세함」이 함께 놓이게 된다. 신랑이 盛裝하고 잔을 드리고 재배하면 문전제가 끝난다. 다음에는 본제사에 해당되는 조상신위를 모시고 제를 모시되, 장소는 큰 구들(큰방, 안방)이 되며, 냉방이어야 한다.

문전제의 神主는 「터주」라고도 하고 또 「八島主神」이라고도 한다. 이 문전제가 주인 위주의 제사라면, 또 한 편으로 주부 중심의 제사가 있으니, 이는 「조왕상」으로 부엌에 차려진다.

이 문전제가 끝난 후에 신랑이 음식상을 받게 되고, 이 음식을 들고 나면 곧 신행길에 오른다.

옛날에는 신랑이 말에 오르면, 하인이 「홍세함」을 지고 신랑의 앞에서 길을 인도 했다. 요즘은 신랑의 둘러리가 홍세함을 진다. 신랑 뒤에는 「우시」(상궐)가 역시 말을 타고 가고 다음에 신부를 태워 올 빈 가마가 따른다. 이 가마를 「獨轎」 또는 「가교마」라 한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 근처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노람치(이영)을 깔고 신랑의 입장을 준비한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많이 타고 다니기에 대문앞 마당 가운데 보통 때는 「말팡돌」을 놓아 이것을 밟고 말을 타고 내린다. 그러나 신랑이 말에서 내릴 때는 말팡돌 대응품으로 나무그릇인 낙박 「도고리」을 놓는다. 신랑이 말에서 내려 「도고리」 위에 서 있다.

이 때에 신랑측의 우시가 홍세함을 신부측의 우시에게 드리면 정중하게 받아서 미리 준비된 상위에 놓고 서로 인사를 교환한다. 인사를 마치면 「홍세함」이 놓인 상을 「문전상」에 놓고서 신부집에서도 신랑집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방에서 문전제를 올린다.

「홍세함」속에는 홍세무명과 禮狀을 넣는다. 홍세무명은 보통 두 필 또는 네 필 정도이며, 예장(婚書紙)은 신랑이 직접 써서 신부덕에 가지고 가는 편지이다.

문전상을 물리고 나면 증방이 신랑께 방으로 들라는 몸짓을 한다. 첫 번째의 증방의 안내 신호에 따라 신랑은 지금까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빨간 부채를 내리고, 다음 안내 신호에 따라 방으로 든다.

제주에서는 奠雁禮도, 홀기도, 초례의식도 없이 신랑이 큰상(食盤)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신랑이 바로 신랑방에 들기 때문에 이를 혼례 「親尋」이라 한다.

신랑방에는 신랑의 둘러리와 증방이 각각 신랑 좌우에 앉고, 그 맞은 편에는 대반과 신부측 사람들이 앉는다.

또 신랑편 우시도 신부측의 대반과 별도의 방에서 역시 食盤을 받는다.

신랑방과 우시방에서 각각 식사가 끝나면 신랑측 우시가 신부의 부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음식상으로 잔치를 베푼다.

이 때까지 신부는 일체 얼굴을 내놓지 않으며, 신랑·신부의 대면도 이날은 못 한다.

드디어 신랑·신부가 신행길에 오른다.

우시가 상을 물리고 방에서 나오면 신랑도 상방(대청마루)으로 나오고, 신부도 상방에 나와서 가마를 탄다.

신랑은 짊어 놓은 노람치(띠풀로 엮은 이엉)를 밟고 걸어서 도고리 위에서 서서 말에 오른다.

신부가 타는 교가마(獨轎) 위에는 虎皮로 덮고 홍세무명으로 둘러 뒷 쪽에서 同心結을 맺는다.

이 교가마는 말 두마리가 앞뒤에 서고, 교가마 채가 말의 안장 중간부에 고정된다. 이 행렬은 신랑이 말을타고 맨앞에 서고, 그 뒤에 신부의 교가마가 따르며, 그 다음에 신랑·신부의 우시(남자 2, 여자 2)가 각각 말을타고 따르며, 그 뒤에 둘러리 등이 따른다.

신랑이 타는 말은 암말이며, 색깔은 구별이 없다. 신랑은 사모관대 차림이다.

우시는 백부·숙부·형 등이 갈 수 있고, 형이 없으면 사촌형이나 外家에서 한 사람이 동행 한다.

신랑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직계는 신행에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使令」이라 하여 신랑택의 종이 등축을 들고 나팔을 불고 따라 갔으나, 요즘은 들리리 또는 우인 대표라 하여 신랑의 친구들이 간다.

신부의 교가마가 집을 떠날 때 신부어머니는 소금과 콩을 뿌리고 방포도 한다. 이는 煞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신부는 이불·요(2~3채)·경대·빋집·긴 베개·요강, 기타 세간들을 가지고 간다. 이 중에서 요강만은 반드시 가마에 싣고 간다.

신랑택에 도착하면, 신랑이 지금까지 입었던 사모관대를 벗고, 손님들을 접대 한다.

신부의 옷차림은 아주 잘 사는 부유층에서는 원삼·족두리 차림으로 盛裝을 하지만, 보통 평복으로 입기도 한다.

신부는 입던 차림으로 신부 방에서 큰상(食盤)을 받는다.

이 방에는 신부측의 우시(여자)와 신랑측의 대반(여자어른)을 비롯하여 구경은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하며 신부를 구경하고 있다.

식반을 물리고 나면 신랑의 친척들이 신부에게 각각 옷을 준다.

다음날 아침 祠堂告祀를 지내고, 사당이 없으면 조상신위의 지방을 붙이고 간단하게 제사를 모신다.

사당고사가 끝나면 시부모를 비롯한 친척들께 인사를 드리니, 이것이 舅告禮이며, 폐백은 따로 없다.

구고례 다음날 신랑·신부 및 신랑 부모와 오라버니·동생 등 모두가 친척들을 찾아 다니며 인사를 한다.

결혼 3일째 되는 날, 신랑·신부·신랑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동생등 일행이 약간의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신부택을 방문한다.

이날 신부의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져간 음식으로 잔치를 베푼 뒤에 신랑·신부만 남겨 두고 훌쩍 집으로 돌아 온다. 이렇게 신랑·신부가 방문하는 것을 「覲親」이라 한다.

다음은 신부택에서 신랑택으로 방문을 하는 차례이다. 보통 再行 3일만에 신랑·신부가 신부의 부모와 함께 역시 술이나 안주 등 많은 음식을 가져

간다.

신랑댁에서도 신부댁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잔치를 베푼다.

이처럼 결혼 3일만에 신랑댁에서 사돈을 뵈로 가고 또 신부댁에서도 재행 3일만에 신랑댁으로 사돈을 뵈로 오는 예가 보통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결혼 다음날 신랑댁에서 재행 겸 사돈을 뵈로 가면, 신부댁에서는 결혼 3일만에 신랑·신부와 신부의 부모가 함께 신랑댁으로 온다.

이것으로 결혼의 절차는 끝이 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결혼과 동시에 즉시 집을 마련하여 새 살림을 시작 하지만 여의치 못하면 밖거리(행랑채)에서 살림을 시작한다. 일단 결혼 하게 되면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술을 따로 걸고 밥을 해 먹는다. 제주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안거리(안채)를 비워주고 부모가 단 살림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도민들은 본인이 활동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주적인 생활을 한다.

새색시가 첫 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친정에서 낳는다. 에기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애기구덕(에기를 넣어서 지고 다니는 대바구니)·애기옷·기저기·쌀 등을 가지고 손주를 보러 사돈집으로 간다. 이때 사돈댁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물건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고 동리 사람들을 대접한다. 애가 엽울만큼 자라면 시집으로 돌아 온다.

요즈음은 결혼풍속이 변하여 거의가 예식장을 이용하여 신식으로 하고 있다. 신혼여행도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근래에 와서야 도내 일주가 고작이었으나, 지금은 서울·부산·경주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실정이다.

조사일 : 1980. 10. 30~11. 5

조사지역 : 제주도

피조사자 : 김광추(76세 : 조사당시)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화북리 (호수 800호)

· 김봉인(82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서하동 (호수 700호)

· 양처중(64세)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 신내리 (호수 320호)